

“仁川を豊かな都市につくりあげていきます。”

“인천을 부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ユ・ジョンボク(유정복)候補、仁川市長当選 유정복 후보, 인천시장 당선



6·4 地方選挙でセヌリ(새누리)党のユ・ジョンボク候補が、仁川市長に当選した。ユ候補は、セ(새)政治民主連合のソン・ヨンギル(송영길)候補、統合進歩党のシン・チャンヒョン(신창현)候補を押し、第 6代 民選仁川市長として当選した。

ユ当選者は、“今回の選挙は、専門家の市長が市政を受け持ち、仁川を導いてほしいという、切実な訴えだと理解しています。”と言いながら、“負債都市である仁川を、豊かな都市につくりあげていくことに、全力を費やすつもりです。これから仁川は、希望のある都市、夢のある都市、住みたい都市に変貌するであろう。”と、所感を明らかにした。

ユ当選者は、すぐにも予算確保チームを構成、来年度の仁川市の事業に必要な国費を確保し、仁川市の負債を減縮するために、強度の高い対策が相次いで実行されることが予測される。

‘수도국산’で、4男3女中の6番目として産まれたユ当選者は、ソン림(송림)小学校・

ソン인(선인)中学校・첸물포(제물포)高等学校で学び、学生生活を仁川で過ごした。外交官の夢を抱き、延世大学の政治外交学科に入学した彼は、1979年、大学3年生の在学中、行政考試に合格。

その後、内務部で勤務しながら、1994年、満36歳という若さで、京畿道・金浦郡守に任命された。翌年には、仁川西区庁長として発令をうけ、全国最年少区庁長のタイトルを手にした。地方自治制が出帆した1995年には、金浦から無所属で出馬し、初代民選・金浦郡守と市長職を任された。

これらの行政経験を基に、彼は金浦で17·18·19代・国会議員に引き続き当選。2005年、初選議員の時期、当時パク・クンへ(박근혜) 한나라(한나라)党代表の秘書室長に抜擢された。2010年 農林水産食品部 長官、2013年には、安全行政部 長官を歴任した。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유 후보는 새정치민

주연합 송영길 후보,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를 누르고 제 6대 민선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유정복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전문가 시장이 시정을 맡아 인천을 이끌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생각한다”며 “부채도시 인천을 부자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쏟을 것이며 이제 인천은 희망이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 당선인은 곧바로 예산확보팀을 구성, 내년도 인천시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인천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들을 잇따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957년 인천의 빈민촌 ‘수도국산’에서 4남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유 당선인은 송림초교·선인중·제물포고에서 공부하며 학창시절을 인천에서 보냈다. 외교관의 꿈을 안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그는 1979년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내무부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만 36세의 나이로 경기도 김포군수에 임명됐다. 이듬해에는 인천 서구청장으로 발령 받아 전국 최연소 구청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1995년에는 김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초대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직을 맡았다.

이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김포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에 연거푸 당선됐다. 2005년 초선의원 시절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고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맡았다.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쮸(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Photo News



“ケバブのおでまし。さあ～列になってください～” “케밥이 왔어요. 줄을 서시오～”

パキスタンから来たカン氏が、あの美味しいケバブを売っている。多文化関係のお祭りが開かれるところなら、どこにでもケバブ専用車に乗って行き、アラブの味を届けている。彼は、パキスタンを旅行していた女性が紛失した鞆を探し当てた。そのことが縁で10余年前、その女性と結婚し、仁川に定着した。妻を魅惑したように、アラブの味と調和した、彼独特のソースを開発し、韓国人の味覚までも、ひきつけている。今日もどこかで、彼の愛のケバブは、人々の列をつくっていることだろう。

파키스탄에서 온 칸 씨가 맛있는 케밥을 판다. 다문화 관련 축제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케밥차를 몰고 가 아랍의 맛을 선사한다. 그는 파키스탄으로 여행 온 아가씨의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주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10여 년 전에 그녀와 결혼하고 인천에 정착했다. 아내를 사로잡았듯 아랍의 맛과 어우러진 그 만의 소스 개발로 한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는 오늘도 어디선가 사랑의 케밥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쮸(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第17回仁川アジア競技大会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より特別な、より感動的な 40億のアジア人たちの偉大な挑戦 더 특별한 더 감동적인 40억 아시아인들의 위대한 도전

www.incheon2014g.org



平和の息遣い、アジアの未来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第17回 仁川アジア競技大会

期 間: 2014.9.19 ~ 2014.10.4
場 所: 仁川広域市 一帯
参加規模: 45ヶ国 20,000余名
競技種目: 36 種目
主 催: アジアオリンピック協議会(OCA)
主 幹: 仁川アジア競技大会組織委員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 간: 2014. 9. 19 ~ 2014. 10. 4
장 소: 인천광역시 일원
참가규모: 45개국 20,000여명
경기종목: 36개 종목
주 최: 아시아올림픽평의회(CA)
주 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指先で世界と疎通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世界のありとあらゆる人形’自発的サークル ‘세상의 별의별 인형’ 자조모임

言葉より手で、まず話しかける人たちがいる。自国の文化が込められた国家別の人形から、小物まで、彼女たちが誕生させる人形には、各自の物語が込められている。‘世界のありとあらゆる人形’を作り上げる彼女たちは、今日も毛糸で独自の物語を編んでいく。

移住女性の国家数だけ、多様な虹色の毛糸でもって親睦を深める彼女たちは、毎週共に時間を過ごしている。‘世界のありとあらゆる人形の自発的サークル’（以下 セビョルイン:세별인）は、2012年 南区 多文化支援センターに設けられた教育プログラムの一環として始まり、現在では、自発的な集いとなった。

布切れ人形として始まった人形作りは、最近になって、編み物人形のほうへ領域を広げている。時間がたつに連れ実力はあがり、最近では才能寄付も始めた。毎週水曜日ごと集い、第1、3週には、人形を作り、第2、4週には‘彼女たちの暖かい遊び場’サークルで24名の移住女性たちに編み物を教えている。

中国出身 移住女性 カオリエン(高利艶,34)さんは、‘サークル活動を通じて、趣味を持つことができ、ストレス解消の助けになった。’と言いながら、‘はじめは、あまり人形に関心がなかったけれど、作りはじめたところ、いまでは時間が過ぎるのも忘れるほどだ。’と言う。特に彼女は、‘サークルで save the childrenに救護物品を送った時が一番幸せだった。私が作った人形が、子供たちの助けになるという事実、やり甲斐を感じている。また、送ってあげる日を待ちな



がら人形を作っている。’と言って笑っていた。彼女たちの息づかいを吹き起こす人形には、言語と国境は必要なかった。人形を通じて彼女たちは、友だちに会い、また心を伝えている。

南区多文化支援センターのチャスジ(차수지) 社会福祉士は、‘趣味生活を通して、社会の構成員として自然と解け合っ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る。一番重要なことは、集いが持続的に続いていくこと。’と強調する。また、‘人形づくりは、多文化女性の文化的特徴を活かしながらいけること。彼女たちの文化的長所を活かしながらい、さらに就業まで連結さ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考えている。’と伝えた。

‘세비ョ르인’は、昨年、仁川国際交流財団のアジア文化館で開かれた、‘世界のありとあらゆる 人形展’で、初の収入を創出

した。また、今年の12月には、‘세비ョ르인’と‘彼女たちの暖かい遊び場’の共同展示が実施される計画だ。

말보다 손으로 먼저 말을 건네는 이들이 있다。자국의 문화가 담긴 국가별 인형부터 작은 소품까지, 그들이 탄생시킨 인형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담긴다。‘세상의 별의별 인형’을 만드는 그들은 오늘도 틈틈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주여성의 나라 수만큼 다양한 무지갯빛 틈틈이 친목을 다지는 이들은 매주 시간을 함께 보낸다。‘세상의 별의별 인형 자조모임’(이하 세별인)은 지난 2012년 남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돼, 현재 자발적인 동아리로 자리잡았다。형겉인형으로 시작한 인형 만들기는 최근 뜨개인형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 최근에는 재능 나눔을 시작하기도 했다。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1, 3째 주엔 인형을 만들고, 2, 4째 주에는 ‘그녀들의 따뜻한 놀이터’ 모임에서 24명의 이주여성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고 있다。

중국출신 이주여성 카오리엔(34) 씨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를 갖게 되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됐다。’며 ‘처음엔 인형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만들다보니 이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만든다。’라고 말했다。특히 그녀는 ‘동아리에서 save the children에 구호 물품을 보낸 일이 가장 기뻐다。내가 만든 인형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또 보낼 날을 기다리며 인형을 만들고 있다。’며 웃어보였다。그들의 숨결을 불어넣은 인형에 언어와 국경은 필요하지 않다。인형으로 그들은 친구를 만나고, 또 마음을 전하고 있다。

남구 다문화지원센터 차수지 사회복지사는 ‘취미생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또한 ‘인형 만들기는 다문화여성의 문화적 특징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이다。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살려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다。

‘세별인’은 지난 해 인천국제교류재단 아시아문화관에서 열린 ‘세상의 별의별 인형 전’에서 첫 수입을 창출하기도 했다。한편, 오는 12월에는 ‘세별인’과 ‘그녀들의 따뜻한 놀이터’의 공동 전시가 진행 될 계획이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 □□ -차·쥬온(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Notice Board

中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では、
先月5月 7日 ‘리홈케어센터(리홈케어)’と連携し、永宗島に居住している結婚移民者を対象とした ‘愛の食卓’ 料理プログラムを進行した。리홈케어센터の才能寄附を通じて、結婚移民者の子女たちのために、栄養化の高い間食を簡単に作れる、‘ごはんピザ’ 作りを実施した。このプログラムは、複雑な韓国調理法を理解し、食文化の適応に役に立つ機会を提供した。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 7일 ‘리홈케어’과 연계하여 영종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밥상’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리홈케어의 재능기부를 통해 자녀들을

위한 영양 간식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밥피자’ 만들기를 실시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복잡한 한국조리법을 이해하고 식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東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6月 14日 京畿道の高陽市で行われる、全国多文化家庭バトミントン大会に参加予定だ。このセンターでは、実務者と結婚移住女性がチームをなし、種目に参加する予定だ。この大会を通じてバトミントン競技参加者はもちろん、家族も共に楽しい時間を過ごすこととなるだろう。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14일 경기도 고양에서 진행되는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본 센터에서는 실무자와

결혼이주여성이 팀을 이뤄 종목에 참여할 계획이다。이 대회를 통해 배드민턴 경기 참가자는 물론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南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6月 2日から3日まで、仁川雇用センター主催の女性結婚移民者 就業支援プログラム ‘WIND’を実施した。職業基礎素養教育を通じ、就業したい結婚移民者たちに、韓国での就業世界や、職場生活について理解の幅を広げた。また、このプログラムは、求職技術の習得 等を通じ、結婚移民者がより早い時間内に、韓国社会で就業するための助けとなるだろう。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2일부터 3일

까지 인천고용센터에서 주최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WIND’를 진행했다。직업기초 소양교육을 통해 취업하려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의 취업 세계와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또한 이 프로그램은 구직기술 습득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빠른 시간 내에 한국사회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延壽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護国報勤の月に入り、6月 21日(土) ‘私たちの願いは統一’という主題で、坡州の臨津閣を体験する。臨津閣平和スリ一帯を見て回り、DMZの生態文化教室、及び長湍豆チョコレート作り等、体験活動も繰り広げられる。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호국보훈의 달

小さな幸せのための善行、‘寄宿舎 ラブハウス’

작은 행복을 선사하다, ‘기숙사 러브하우스’

仁川外国人力支援センター 인천외국인력 지원센터



仁川南洞区は、男性外国人の数が8,700余名で、仁川での外国人 比率がもっとも高く、南洞工団に 勤務する外国人勤労者が大多数を占める。彼らは、近隣地域や工団内の寄宿舎に滞在する。ゆとりのない空間に、大勢が過ごしているため快適でないことが多々ある。

延壽洞にある寄宿舎も状況は同じだ。古棧洞の電子機器製造企業(株)フレッシュタウンに勤務している外国人 勤労者 3名が滞在している寄宿舎は、色あせた壁紙と垢だらけのタイル等、歳月の跡が染み付いていた。これに対し、仁川外国人力支援センター(以下:センター)は、‘寄宿舎ラブハウス’の企画を行った。これは、勤労者には、より良い環境を用意し、事業主には、環境改善が必要であることを伝えるための企画だ。韓国電力公社の仁川地域本部、延世大学、松島国際キャンパス 社会寄与教科の学生等、30余名がカビやこびりついた垢をはがしとり、新しい壁紙を貼り、ペイントをしながら大粒の汗を流した結果、今まで横に

なっているだけの寄宿舎が、ゆったりと休息できる居心地の良い空間に変身した。

2010年 2月 開館したセンターでは、これ以外にも外国人の勤労者のため、活発な活動を行っている。勤労者のIDカードの発給から始まり、退社、移職等、就業分野及び、言語とコンピューター教育、行政申告業務を支援している。センター内に勤務中のベトナム、タイ、フィリピン人等は、通訳相談士の援助によって気楽に相談を受けることもできる。

安全教育と出入国管理法等、無料での法律労務相談サービスも大きな力となっている。勤労者及び、事業主の苦衷相談と勤労現場での通・翻訳支援サービスは、事業主、勤労者共に満足度が高い。情緒的な安定のために事業も多様だ。国家別の共同体、サークル、体育大会等を通じて親睦を図る一方、韓国をより多く見て感じられるよう、仁川沖にある舞衣島(무의도)や、龍仁にある民俗村等でも見学。また、内科、歯科、韓方等の無料診療と無料美容サービスを提供

しているが、これらは全てボランティアでとり賄っている。

センターでは、座って外国人勤労者の訪問を待っているよりも、地下鉄駅や工団等、勤労者が沢山集まっているところに直接訪ねていき、センターについての活動を知らせる業務も行っている。ハングルを習うため訪れていた勤労者が、いまでは悩みを打ち明けるほど、彼らには心強い高台となっている。センター 訪問の勤労者の数は、18,000余名で、全国 7ヶ所のセンターの中でも 2、3位に選ばれている。

仁川外国人力支援センター
● 住所: 仁川広域市南洞区 ホグボ路 220 (論峴洞 636-3) ミョンジンプラザ 12F
● 問い合わせ: 032-431-422

인천 남동구는 남자 외국인 수 8,700여 명으로 인천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 그중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인근 지역이나 공단 내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 넉넉하지 않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지내다 보니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기숙사 러브하우스’를 기획했다. 근로자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업주에게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 사회기여 교과 학생 등 30여 명이

곰팡이와 찌든 때를 벗겨내고 도배와 페인트 칠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누워서 잠만 자던 기숙사가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2010년 2월 개관한 센터는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중이다. 근로자의 ID카드 발급부터 시작해 퇴사, 이직 등 취업 분야 및 언어와 컴퓨터 교육, 행정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센터 내에 근무 중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통역상담사 덕분에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과 출입국관리법 등 무료 법률노무상담서비스도 큰 힘이 된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 상담과 근로 현장 통번역 지원 서비스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다. 국가별 공동체, 동아리, 체육대회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을 더 많이 보고 느끼도록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무의도와 용인 민속촌 등에도 다녀왔다. 이와함께 내과, 치과, 한방 등 무료 진료와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센터는 앞서서 외국인 근로자의 방문을 기다리기보다는 지하철역, 공단 등 근로자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 센터를 알린다. 한글을 배우려고 오던 근로자가 이제는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그들에게는 든든한 언덕이다. 센터 방문 근로자 수는 18,000여 명으로 전국 7개 센터 중 2, 3위로 꼽히고 있다.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주소: 인천시 남동구 호곡포로 220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F
● 문의: 032-431-422

주 란 기자
-जू- 란(주란) 記者 rri0217@naver.com

을 맞아 6월 21일(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주제로 파주 임진각을 체험한다. 임진각평화누리 일대를 둘러보고 DMZ생태문화교실 및 장단콩초 콜릿만들기 등 체험 활동도 펼친다.

南洞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5月 28日 仁川cgv 映画館で、ソウル ‘藝術の殿堂’の公演映像、‘胡桃割り人形’を観覧した。公演は、大型スクリーンを通じて、‘藝術の殿堂’の舞臺を生中継する形式で進行され、アーティストの真に迫った表情と身ぶりなど、生動感に満ち溢れていた。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28일 인천 cgv 영화관에서 예술의전당 공연영상 ‘호두까기 인형’을 관람했다. 공연은 대형스크린 통해 예술

의 전당의 무대를 생생하게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었다.

富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5月 25日 多文化家族の子女30名と一緒に幸福な週末体験外出を実施した。一行は、坡州のチーズスクールを訪問し、子牛授乳体験、及びイムシル(임실)チーズ、ピ자作り体験の後、龍頭山にある統一展望臺を観覧した。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25일 다문화가족 자녀 30명과 함께 행복주말 체험나들이를 진행했다. 일행은 파주 치즈스쿨에 방문하여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 및 임실 치즈,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한 후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관람했다.

西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5月 8日センター内の教室で、‘스쿠스英語教室’を開講した。この英語教室は、未就学多文化家庭の子女10名を対象とした、ネイティブ講師から習う楽しいアルファベットの世界だ。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8일 센터 내 교 육실에서 ‘도담도담 영어교실’을 개강했다. 이 영어교실은 미취학 다문화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에게 배우는 재밌는 알파벳 세상이다.

江華郡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仁川大学と共に 5月 28日 ‘多文化家族とひとつになる同行’を開催した。多文化家族 70余世帯(150余名)が参席した今回の行事は、仁川大学が ‘国立大 出帆 1周年 記念、グロー

バル希望 完成 プロジェクト’の一環として行われた。セントラルパークから遊覧船に乗った後、仁川大キャンパスを見学し、校内公演場で公演藝術學科の学生たちが繰り広げるナンタ(난타)公演、韓国舞踊、K-POPダンス等、文化公演を観覧した。公演終了後には、江華郡の多文化子女たちがグローバル人材として成長してくれることを願う ‘希望の木’の記念植樹が行われた。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천대학교와 함께 5월 28일 ‘다문화 가족과 하나 되는 동행’을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 70여 가구(150여 명)가 참석한 이 행사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출범 1주년 기념 글로벌 희망 완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仁川ユナイテッド その現場に行く ‘仁川サッカー専用競技場’ Football Stadium’

인천유나이티드 그 현장을 가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TVの中のサッカー競技場は、想像以上” “TV 속 축구경기장, 상상 그 이상”

2014ブラジルワールドカップの熱気で地球村が騒がしい6月。サッカーへの関心が勢いを増しながら、仁川ゆかりのプロサッカーチーム、仁川ユナイテッドFCのホーム競技場である、‘仁川サッカー専用競技場’も、ワールドカップ競技後、再度開戦されるKリーグ競技を準備している。普段からサッカーが好きなベトナム出身の移住女性イムヘジョン(임혜정,25)さんとホンバン(홍반,25)さんが、サッカー専用競技場を訪れた。容易に見ることのできないサッカー競技場の内部を、隅から隅まで見て回った彼女たち。TVで見るサッカー競技とは、また違うおもしろさを発見した。

イムヘジョンさんとホンバンさんの足が、一番先に向かったところは観衆席だ。2万席を少し越える規模の仁川サッカー専用競技場は、大きく4つの階に区分されていて、室内の空間であるスカイボックスとVVIPルームが用意されている。2階のプレミアム席と1階のW席は、観衆席の中で競技を観覧するのに一番良い席だ。彼女たちもやっぱりここを一番に選んだ。

ホンバンさんは“階や方向によって観覧ポイントが違ってきますね。3、4階は、競技を詳しく見るには難しい反面、全体的に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長所があり、1階は選手たちに近寄って、もっと迫力に迫る競技が見れると思います。個人的には、視野もゆったりとして、選手たちにも近づける2階のプレミアム席が一番気に入りました。”と言った。

彼女らは、選手たちが入場する動線に従って、競技場の内部も見て回った。一般人の出入りが禁止されている選手たちだけの領域だ。駐車場からロッカールームまで続くロビーには、選手たちのサッカー靴が展示されている。実筆サイン入りのサッカー靴は、選手たちの体温をそのまま伝えてくれるようだ。ロッカールームに入っていったイムさんとホンバンさんの目が真ん丸になった。イムヘジョンさんは、“普段は競技している姿だけ見ていたけど、休む場所があるなんて考えてもいなかったんです。施設もきれいで、なにより選手たち



イムヘジョン(左)さんとホンバン(右)さんが2階のロビーに展示された選手たちの運動靴を観覧している。
임혜정(좌)씨와 홍반(우)씨가 2층 로비에 전시된 선수들의 운동화를 관람하고 있다.

のための空間がとつとも良く設備されているんですね。”と言いながら驚いていた。ロッカールームは、選手たちのユニフォームがかけられている棚や、競技場の環境と同じようにつくられた準備運動室、そしてマッサージ室やシャワー室等、選手たちのコンディションを維持するための空間が用意されている。

彼女らは、自然芝生が広々とひろがったグラウンドを最後に、仁川サッカー競技場の探訪を終えた。イムさんは、“グラウンドと観衆席が他の競技場に比べて近いのが一番の長所。”と言いながら “テレビでの競技を見ながら、選手たちが駆け回るグラウンドが一番気になってなっていました。直接来てみて、テレビで見ていたのよりもはるかにいいですね。新しく感じられますよ。”といった。“桃源駅に隣接していて探すのも簡単。”と、交通の便の良さも強調した。

仁川サッカー専用競技場は、2万3百席が設けられたサッカー競技場だ。競技場と観衆席の距離は、1mも離れていない全国で一番近く競技を観覧できる所。また、国鉄1号線の桃源駅と続く北側の2階スタンドには、ピクニック席が設けられ、競技がないときには市民たちに開放し、多様な文化空間として活用している。

2014 브라질월드컵 열기로 지구촌이 들쭉거리는 6월,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인천 연고 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FC의 홈 경기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도 월

드컵 경기 후 다시 벌어질 K리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한다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임혜정(25) 씨와 홍반(25) 씨는 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았다. 쉽게 보기 힘든 축구경기장의 내부를 속속들이 살펴 본 그들. TV에서 본 축구경기와는 또 다른 재미를 발견했다. 임혜정 씨와 홍반 씨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관중석이다. 2만석이 조금 넘는 규모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내 공간인 스카й박스나 VVIP룸이 마련돼 있다. 2층의 프리미엄석과 1층 W석은 관중석 중 경기를 관람하기 가장 좋은 자리다. 그녀들 역시 이곳을 으뜸으로 꼽는다.

홍반 씨는 “층이나 방향에 따라 관람 포인트가 달라진다. 3, 4층은 경기를 자세히 보기 힘든 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층은 선수들과 가까워서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시야도 편하고 선수들과 가까운 2층 프리미엄석이 가장 맘에 든다.”고 말한다.

이들은 선수들이 입장하는 동선을 따라 경기장 내부도 살폈다. 일반인은 출입이 금지된 선수

들만의 영역이다. 2층 로비에는 선수들의 축구화 전시돼 있다. 친필 싸인이 담긴 축구화는 선수들의 체온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하다. 라커룸에 들어서자 임 씨와 홍 씨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임혜정 씨는 “평소엔 경기하는 모습만 봐서 쉬는 곳이 있던 생각은 못했다. 시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선수들을 위한 공간이 잘 돼있는 것 같다.”며 놀라워한다. 라커룸은 선수들의 유니폼이 걸려있는 사물함, 경기장 환경과 흡사하게 꾸며놓은 준비 운동실 그리고 마사지실과 샤워실 등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들은 자연잔디로 넓게 펼쳐진 그라운드 끝으로 인천축구경기장 탐방을 마쳤다. 임 씨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다른 경기장에 비해 가까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TV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가 가장 궁금했다. 직접 와서 보니 TV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좋다. 새롭게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도원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찾아오기도 수월하다”며 교통의 편리성도 강조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2만 3백석이 마련된 축구경기장이다. 경기장과 관중석의 거리는 1m가 채 되지 않아, 전국에서는 가장 가깝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국철 1호선 도원역과 이어진 북측 2층 스탠드는 피크닉석이 마련돼 경기가 없을 경우 시민들에게 개방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로코-챌-쥬운(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2014仁川ユナイテッドの競技日程 2014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일정

日程 일자	時間 시간	match	備考 비고
07.06(日) 07.06(일)	19:00	仁川 vs 尙州 인천 vs 상주	
07.09(水) 07.09(수)	19:30	仁川 vs 城南 인천 vs 성남	
07.23(水) 07.23(수)	19:30	仁川 vs 浦港 인천 vs 포항	
07.26(土) 07.26(토)	19:00	Incheon vs 蔚山 인천 vs 울산	変更予定 변경예정
08.10(日) 08.10(일)	19:00	仁川 vs 慶南 인천 vs 경남	
08.24(日) 08.24(일)	19:00	仁川 vs 濟州 인천 vs 제주	
08.30(土) 08.30(토)	19:00	仁川 vs 釜山 인천 vs 부산	
10.05(日) 10.05(일)	16:00	仁川 vs 尙州 인천 vs 상주	
10.11(土) 10.11(토)	14:00	仁川 vs 浦港 인천 vs 포항	
10.18(土) 10.18(토)	14:00	仁川 vs 全北 인천 vs 전북	
10.26(日) 10.26(일)	14:00	仁川 vs 全南 인천 vs 전남	



無料 学科試験 教育プログラム 運営

무료 학과시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仁川運転免許試験場 인천운전면허시험장



仁川古棧洞に位置する運転免許試験場で、多文化女性たちが学科試験を受けている。
인천 고잔동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문화여성들이 학과시험교육을 받고있다.

運転免許取得を目標にしているなら、まず最初に ‘学院’が思い浮ぶ。しかし、思ったより高価な学院費。無料で運転免許教育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所を探すなら、仁川運転免許試験場に行ってみよう。道路交通公団の仁川運転免許試験場では、移住女性たちのために学科試験の無料教育プログラムを実施している。

南洞区の古棧洞に位置する仁川運転免許試験場は、毎週 水曜日、無料額料試験のコンブバン(공부방)を運営している。移住女性をはじめとする、身体的な制約者、社会的弱者 等、免許取得が困難な人

たちを対象に学科試験の教育を行うプログラムだ。

移住女性たちが、一番難しいのがまさしく ‘言語’である。仁川運転免許試験場では、移住女性たちのため、言語解釈及び道路交通法の説明、道路標識の読み方等を詳しく教えている。移住女性 ハンハイ(한하이:베트남出身)さんは、夫と共に運転免許試験場を訪問した。ハンさんは、”この頃は、農業をしても運転することが多い。その間、免許がなく不便だったけれど、この機会に無料教育も受け、試験も受けることができて幸せだ。”と伝えた。ハンさん

はこの日、学科試験に合格後、技能試験を受けた。免許試験場では、無料で技能試験を、前もって体験できるように援助しているため、一日で学科試験と技能試験合格が可能である。

運転免許試験場のパク チャンゲン(박장근)チーム長は、”個人が準備する場合、平均5回以上は受験した後、合格する反面、コンブバン(공부방)で無料教育を受けると、1, 2回ぐらいで合格することができます。”と説明する。

運転免許試験場は、毎週開かれる無料学科教育以外にも、訪問学科教育プログラムを行っている。6月には、延壽区多文化支援センター(11日)と 南洞区多文化支援センター(18日)を訪問し、無料学科教育を実施する予定だ。

● 問い合わせ：032) 810-2331
仁川運転免許試験場 試験部

운전면허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먼저 ‘학원’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싼 학원비는 만만치 않다. 무료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보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학과시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매주 수요일, 무료 학과시험 공부방을 운영한다. 이주여성을 비롯해 신체적 제약

자, 사회적 약자 등 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과시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주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언어’다.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언어해석 및 도로교통법 설명, 도로표지판 읽는 법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주여성 한하이(베트남 출신) 씨는 남편과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한 씨는 “요즘은 농사를 지어도 운전할 일이 많다. 그동안 면허가 없어 불편했는데, 이번 기회에 무료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한 씨는 이날 학과시험에 합격 후 기능시험을 치렀다. 면허시험장에서는 무료로 기능시험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하루만에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합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박장근 팀장은 “개인이 준비할 경우 평균 5회 이상 응시한 후 합격을 받아내는 반면, 공부방에서 무료 교육을 받으면 1, 2회 만에 합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매주 열리는 무료 학과 교육 이외에도 ‘찾아가는 학과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에는 연수구다문화지원센터(11일), 남동구다문화지원센터(18일)에 ‘찾아가 무료 학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 032) 810-2331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시험부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 -차야·쥬운(차지은) 記者·minsable@hanmail.net

一皿の美学, 日本の ‘寿司(Shushi)’ 한 접시의 미학, 일본의 ‘스시(Shusi)’



る文化が自然と発達した。急激な変化が起きた江戸時代には、人々の食性も急変した。食べ物を早く食べるために、ごはんの上につかまえたばかりの魚をのせて食べ始めたのが、現在の即席寿司となった。発酵の酸っぱい味を酢が代わりに出すことで、固有の味をそのまま保ちながら ‘生’で食べる食べ物となったのだ。 やや酸っぱいごはん、こしとやわらかさのある刺身とが調和する寿司は、新鮮さが命、どんな魚であるかにより、その味は千差万別だ。魚卵、サッと焼いた牛肉、

日本を代表する食べ物 ‘寿司’。 ‘酸っぱい’を意味する ‘寿司’は、酢、だし、塩、砂糖等で味付けした酢飯(銀シャリ)に魚をのせて食べる ‘生’の食べ物として有名だ。しかし、はじめから ‘生’の食べ物ではなかった。元来の寿司は、鮒を塩に1ヶ月から1年ぐらい漬けて、温かいごはんとともに食べた ‘鮒寿司’だった。 四季がはっきりとした島国の日本の主食は、農産物と魚だった。魚を長期間保管するために漬けて食べ

新鮮な野菜、黄色い卵等、材料により、まったく違う食べ物になることもある。また、日本では食べ物をのせる時、色と空間、季節との調和を考慮して盛る。一皿の寿司に込められた ‘目で見える味’と ‘食べる味’を 一口で楽しんでみよう。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 ‘스시’. ‘시다’는 뜻의 ‘스시’는 식초와 소금 등으로 양념한 쌀밥에 생선을 얹어 먹는 ‘날’ 음식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날’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 원조 스시는 붕어를 소금에 1개월에서 1년 정도 절였다가 따뜻한 밥과 같이 먹었던 ‘후나 스시’다.

사계절이 뚜렷한 섬나라 일본의 주식은 농산물과 생선이었다.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절여 먹는 문화가 자연스레 발달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던 에도시대에는 사람들의 식성도 급해졌다. 음식을 빨리 먹기 위해 밥 위에 갓 잡은 생선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즉석 스시가 됐다. 발효의 신맛을 대신하는 식초 덕분에 고유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날’로 먹는 음식이 된 것이다.

새콤한 밥알과 쫄깃하고 부드러운 살이 어우러지는 생선 스시는 신선함이 생명. 어떤 생선이냐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이다. 생선의 알, 살짝 구운 소고기, 싱싱한 채소, 노랑계 익은 계란 등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되기도 한다. 일본은 음식을 담을 때 색상과 공간, 계절의 조화를 고려해 담아낸다. 스시에 담긴 ‘보는 맛’과 ‘먹는 맛’을 한 입에 즐겨보자.

주 란 기자
-쥬·란(주란) 記者·mi0217@naver.com

中国 青島のお嬢さんが、仁川の奥さんとなって歩む人生

중국 청도(靑島) 아가씨, 인천댁으로 살기

“移住民女性も 韓国のために大きな力になれるんです。” “이주민여성도 한국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アン(ang), ウォン(ong)...

“鐘を打つとでる音があるでしょ。緊張をやわらげてください。口元があまりにも緊張してます。”

九月洞に所在する南洞消防署3階のろくに、穏やかな笑い声がひろがる。会議室のドアをこっそり開けると、白いチーパオにレンギョウ色のカーディガンを装った講師が、中国語を教えていた。その内容は、中国語の声母と韻母だ。声母と韻母は、韓国語の子音と母音のようなものだ。多少おぼつかない韓国語で中国語の講義をしている彼女は、中国の青島から韓国にお嫁に來た、ウォンミ림(原美琳, 34)さん。中国語講義の受講者は、南洞消防署の職員と義勇消防隊員たち。マンウォル女性義勇消防隊員として活動中の彼女は、3月から毎週月曜日2時から2時間、実用会話を基礎とした中国文化を紹介している。30余名の受講生の前で中国語、そして仁川と向かい合っている。

彼女が仁川を知ることは、ボランティアにもつながっている。幼稚園で中国文化を紹介する多文化講師としての活動している。伝統衣裳体験とマンドゥ(만두)作り、そして試食等を行いながら、子供たちに中国を紹介し、互いに異なる文化を理解させている。また、仁川国際交流財団で2012年から2014年4月末まで中国語の講義を実施、現在 中央図書館で通・翻訳の奉仕も行っ

ている。

“社会奉仕をすることによって色々な人たちと出会えるし、情報ももらえるし、韓国社会を知ることのできるのいいです。その上、私が持っている言語能力を、他の人たちに与えることができる事にとっても満足しています。韓国において欠かせない人になったような気がするからなんです。”と、彼女は明るく笑った。

양(ang), 워(eng)...

“중을 쳤을 때 나는 소리 있죠. 긴장을 푸세요. 입이 너무 긴장되었어요.”

구월동 소재 남동소방서 3층 복도에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진다. 회의실 문을 열며서 여니 흰색 치파오에 개나리 빛의 가디건을 걸친 강사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원미림(原美琳, 34) 씨다. 그녀는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를 알리고 있다. 성모와 운모는 우리나라 자음과 모음과 같다. 다소 서툰 한국어로 중국어 강의를 하는 그녀는 중국 청도(靑島)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

중국어 강의를 듣는 이들은 남동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다. 만월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30여명의 수강생 앞에서 중국어를 고리로 인천을 만나고 있다.

그녀의 인천 알기는 봉사에서도 이어진다. 유치원에서 중국문화를 알리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한다. 전통의상체험과 만두 만들기

와 시식 등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중국을 알리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시킨다. 또한 인천국제교류재단에 중국어 강의를 했으며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통번역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하면 사람도 만나고 정보도 얻고 한국 사회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만족스러워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녀가 환하게 웃는다.

文化の差は、充分に克服できます。

彼女と韓国との縁が結ばれたのは、2004年 5月、中国の青島に滞在していたキムヨンホ(김용호, 39)氏に出会ってからだ。韓国の会社で夫は機械設計の仕事をし、彼女は品質検査をしていた。中国語を習い教えながら、親しくなった二人は、恋人の間柄に進展した。

“韓国人に会ったことに驚き、多少うろたえがありました。” 外国人に出会うなんて思ってもみなかったが、キムヨンホ氏は、善良で誠実だった。そんな姿が彼女の心を動かし、1年間の恋愛後、2005年 11月 彼について韓国に入国した。夫の実家がある全州に行き結婚し、息子のハ빈(하빈)を産んだ。ハ빈は現在小学校 1年生だ。

外国に一度も出たことのなかった彼女にとって、韓国に入国し定着するのは、そう簡単ではなかった。愛する人を信じてついてはきたものの、はじめは文化になじめず大変だった。“中国は社会的に女性の地位が高いんですよ。月給も公平ですし、家庭の仕事においても男性と女性が公平なんです。女性が料理をすれば、男性は皿洗いをするのは当たりまえ。韓国では、女性の社会的地位が低いんですよね。韓国に来てみると女性の地位がまるで水の中に沈んでしまったかのよう、どぶんと落ちている感じがした。”

彼女は、言葉を続けた。“中国は女性が大切なんです。特に嫁を、とても大切にするんです。” 中国人の嫁は皿洗いをしないという噂も聞いていたが、中国では、このように嫁をもてなすとのことだ。彼女は、‘中国人の嫁は、怠け者だ。’なんて言われぬように努力した。夫の叔母(시고모님)は、‘うちの甥っ子の嫁は、そんなことないわ。’と言いながら、誉めてくれたし、周りの人たちは、‘ハ빈のママみたいな人を紹介してちょうだい。’と言う。文化の違いと言うのは、私一人が不便じゃなく、お互いが不便だと言うこと。韓国語が未熟なために、ため口で話してしまうのも夫の両親は理解してくれた。“私も悪い人じゃないけれど、夫の家族も良い人たちなんです。”





2005년 11월 夫と共に仁川國際空港へ、はじめて足を踏み入れた日の記念写真
2005년 11월 남편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날 '찰칵'

문화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녀가 한국과의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5월 중국 청도로 날아온 김용호(39) 씨를 만나면서다. 한국회사에서 남편은 기계설계 일을, 그녀는 품질검사를 했다. 중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가까워진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다. “한국사람을 만나는 것이 놀라웠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녀는 외국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도 못했다. 김용호 씨는 착하고 성실했다. 그런 모습들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1년 연애를 하고 2005년 11월 그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다. 시댁이 있는 전주로 내려가 결혼을 하고 아들 하빈이를 낳았다. 하빈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다.

외국으로 단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던 그녀가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다. 사랑을 따라 왔는데 처음엔 문화가 안 맞아서 힘들었다. “중국은 사회적으로 여자의

지위가 높아요. 월급도 공평해요. 가정일도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고요. 여자가 음식 만들면 남자가 설거지해요. 한국은 여자의 사회적 지위 낮아요. 한국에 오니 여자의 지위가 물에 빠지듯 풍덩 떨어졌어요.”

그녀는 말을 잇는다. 중국은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한다. 중국며느리가 설거지 안 하더라는 소문도 들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며느리를 대접한다. 그녀는 ‘중국 며느리는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노력했다. 시고모님이 ‘우리 조카며느리는 안 그래’라며 칭찬을 하고 주변사람들은 ‘하빈 엄마 같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나 혼자 불편한 게 아니라 서로 서로가 불편한 것이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반말하는 것도 시부모님은 이해했다. “나도 나쁜 사람 아니지만 시댁도 좋은 사람들이예요.”

堂々とした母親になること

2007年夫の職場について仁川に引っ越し、彼女は、寂しくて戸惑うことの多い日常生活をおくった。その当時、言葉が通じなかった。文字も知らず韓国語ができないのは、あまりにももどかしかった。その上知り合いもなく、家の中でテレビとの毎日。夫から、‘外は、危いから気をつけて。’と言われ、その言葉に恐れは倍増、あえて外出を放棄した。市場に行くなどの、必要最小限の外出に留まった。病気にかかって病院に行った時など、言葉が通じず冷や汗でびっしょりになった記憶を反芻する。

息子のハ빈が保育園に通うようになってから、彼女は外に出始めた。息子を保育園に送った後、‘韓国語を習わなくっちゃ。’と考えた。勉強しながら人々に出会い、情報

ももらった。皮膚管理と ネールアートの資格証も修得した。中国では電気自転車も怖かったが、運転免許の普通2種も取得した。また、彼女は先月、韓国語のトピック4級の試験を受け、まもなく資格証が授与される。その上、コンピューターハングルとパワーポイントの試験を受け、結果はAを獲得。現在、京仁教育大学(桂陽区)で、通訳トウミ(도우미)課程を受講中だ。そこでの、彼女のあだ名は微笑天使。肯定的で親切的な彼女にピッタリの愛称だ。将来の彼女の希望は、貿易会社に就職し、通・翻訳をすることだ。‘移住民女性も韓国にとって大きな力になれると思います。だから勉強するんです。もっと多様なかたちで助けになりたいんです。’

彼女が堂々と生きていこうと努力する理由はひとつ、息子のハ빈のためだ。‘常に肯定的に生きてゆ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よね。私が堂々と生きてゆけば、息子も堂々と生きて行くはず。私が頭を下げて生きるなら息子もまた、頭を下げることでしょ。息子のためなら、なんにでも一生懸命になれるんです。母親の後ろ姿から受ける影響はとっても大きいと思います。’

青島から来たお嬢さんは、夫の綱に従い見知らぬ韓国に定着した。これからの彼女は、息子の自慢の綱になるため、‘微笑天使の仁川の奥さん’として、堂々と生き抜いていくことだろう。

堂堂한 엄마가 될 것

2007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녀는 외롭고 당황스러운 일상을 보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다. 한국말을 못하니 글씨도 모르고 답답했다. 아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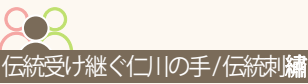
도 없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다. 남편은 ‘나가면 무서우니 조심해라.’고 했다. 그러니 더 떨려서 나갈 엄두도 못 냈다. 시장에 가거나 꼭 필요할 때만 문을 나섰다.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땀만 뻘뻘 흘렸던 기억을 되새긴다.

아들 하빈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문밖을 나섰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한국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공부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정보도 얻었다.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자격증도 땀다. 중국에서는 전기 자전거도 무서웠지만 운전면허 보통 2종도 취득했다. 그녀는 지난달 한국어 토익 4급 시험을 봤다. 곧 자격증도 나온다. 컴퓨터 한글과 파워포인트 시험을 봐서 A를 받았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계양구)에서 통역도우미 과정을 공부 중이다. 그곳에서 그녀의 별명은 미소천사다. 긍정적이며 친절한 그녀에게 걸맞는 애칭이다. 그녀의 희망은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통번역을 하는 것이다. “이주민여성도 한국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해요. 더 다양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녀가 당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 아들 하빈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당당하게 살면 아들도 당당하게 살죠. 내가 머리를 숙이고 살면 우리 아들도 머리를 숙여요. 아들 때문에 모든지 열심히 해야 해요. 엄마의 뒷모습은 커요.”

청도 아가씨는 남편의 끈을 따라 낯선 한국에 정착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끈이 되기 위해 ‘미소천사 인천댁’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ヨン(김민영)編集長·
gem0701@hanmail.net



門と家門の文化 相見の礼 ‘伝統幣帛の食べ物’

가문과 가문의 문화상견례 ‘전통폐백음식’

韓国の伝統婚礼儀式には、‘ペベック(폐백)’という手順がある。ペベックは、新婦が新郎側の目上の方々にもっとも丁寧なお辞儀をし、徳談を聞く手順だ。‘私、これよりみなさんの家族になります。’という申告式の意味をもっている。家族と家族の初対面であるペベックに用意される食べ物も、新婦の母親が準備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ペベックの膳には、ペベック鶏、クジョルパン(구절판)、干し肉、ピョン보(편포)、栗なつめの코임(고임)等、地域によって、また家門によって多様である。ペベックの食べ物は、それだけ多様な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多産と豊かさ、長寿と和睦さを込め、新郎と新婦の祝福を祈願する。ペベックの食べ物の中で、一番派手な食べ物は、子孫の繁栄を意味するペベック鶏だ。竹の編みに蒸した鶏に、華やかな紙の旗をたて、イ카で花と鶴を作り、素敵な形をなす。‘うちの娘が苦労しないよう、可愛がってやってください。’といった意味、また ‘うちは、このように住んでおります。’という実家の母親の心持やセンスが、ペベックの食べ物の中に華やかにこめ込まれる。

우리나라의 전통혼례 의식에는 ‘폐백’이라는 절차가 있다. 폐백은 신부가 시댁어른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덕담을 듣는 절차다. ‘저, 이제 가족이 되려합니다.’라는 신고식인 셈이다. 가족과 가족의 첫 만남인 폐백에 차려지는 음식을 ‘폐백음식’이라 한다. 폐백음식은 신부어머니가 마련한다. 폐백의 상차림에는 폐백닭, 구절판, 육포, 편포, 밤·대추고임 등 지역마다 집마다 다양하다. 폐백음식은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다산과 풍요, 장수와 화목을 담아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기원한다. 폐백음식 중 가장 화려한 음식은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는 폐백닭이다. 대나무 채에 찌낸 닭에 화려한 종이 깃을 세우고 오징어로 꽃과 학을 만들어 멋진 모양을 낸다.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고 예쁘게 잘 봐주세요.’라는 의미와 ‘우리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친정어머니의 마음과 센스를 폐백음식에 화려하게 담는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文·□□ 키로민ヨン(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そこには、仁川の結晶が光輝いている ソレ(소래)湿地生態公園

그곳엔 인천의 결정(結晶)이 반짝인다 – 소래습지생태공원



潮が引いたところに湿地公園が広がるのは、ソレ(소래)湿地生態公園だ。1996年までは、‘ソレ塩田’として有名だったところである。全国最大の天日塩生産地が閉塩田された悲しみを振り切り‘ソレ湿地生態公園’となった。多様な体験と休息をとることができる、ここは、オールシーズン市民たちの

足が絶えない。
葦原を越えて吹き渡ってくる風が風車をまわし、多様な湿地植物がコースごとに根を下ろし果てしない。長い歳月の痕跡だけを残す塩倉庫のそばには、塩はいまだ変わらず結晶体をなしている。子供たちと靴を脱いで干潟に駆け込み海水と戯れるの

も良い。足の指の間をくすぐる干潟がなんともくすぐたい。

ソレ湿地生態公園は、仁川トッレキル(둘레길)のひとつコースとしても有名で、‘トレッキング族’にも人気だ。道沿いには、体全体に流れてくる海風、まさに仁川の匂いが濃くしみこ

んでいる。もっとダイナミックな公園との出会いを望むなら、自転車に乗って前髪をひるがし飛ばしてみよう。

바닷물이 지나간 자리에 습지공원이 드넓게 펼쳐졌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이다. 1996년까지만 해도 ‘소래염전’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전국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가 폐염전의 아픔을 뒤로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됐다.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곳엔 사시사철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갈대숲을 지나 불어오는 바람이 풍차를 돌리고 다양한 습지 식물들이 코스마다 자리를 잡아 아늑하다. 오래되어 흔적만 남은 소금창고들 사이, 소금은 여전히 그곳에서 결정체를 이룬다. 아이들과 신발을 벗고 갯벌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쳐도 좋다. 발가락 사이를 뽀글뽀글 오르내리는 갯벌이 간지럽다. 조류 관찰대에선 발걸음을 조심할 것.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철새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 둘레길의 한 코스로도 유명해 ‘트레킹족’에게도 인기다. 길을 따라 온몸을 타고 흐르는 바닷바람엔 인천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다. 좀 더ダイナミック한 공원을 만나고 싶다면, 자전거를 타고 앞머리를 휘날리며 달려보자.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차·지운(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必ず 立ち寄ってみてください。 ‘소래湿地生態公園展示館’

海と干潟の物語が込められているここは、必須コースだ。塩がつくられるまでの全過程を観察、塩田の学習場と、干潟に生きている生命たちとの出会い。特に西海岸に位置する仁川は、良質の干潟で有名だ。海洋探究の自然学習の場として、干潟と湿地、塩田についての全てを紹介する学びの場所だ。



- 観覧時間 午前10時~午後6時(入場5時まで)
- 休館日 毎週月曜日 及び 法定公休日の翌日(但し、月曜日が公休日の場合は、その翌日) 1月1日、ソレ(설)・秋夕年休
- 利用料金: 無料
- 団体の場合 事前予約必須: インターネット予約で受付 (<http://grandpark.incheon.go.kr>)
- 予約関係のお問い合わせ: 032)435-7076

꼬~옥 둘러보세요. ‘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바다와 갯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곳은 필수 코스다.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염전 학습장과 갯벌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서해안에 자리 잡은 인천은 갯벌이 좋기로 유명하다. 해양탐구 자연학습장으로서 갯벌과 습지, 염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배움의 장소다.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은 5시까지)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다음날(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 이용요금: 무료
 - 단체인 경우 사전예약 필수: 인터넷 예약 접수(<http://grandpark.incheon.go.kr>)
 - 예약관련 문의: 032)435-7076

自転車無料でお貸します~

ソレ湿地生態公園の入口では、南洞



区公営自転車貸出所が運営されている。2012年の9月、仁川で初めて設置された南洞区・公営自転車貸出所では、身分証明書を見せ、携帯電話番号の確認する手続きを終えると、ヘルメットと共に自転車を貸してくれる。MTB、サイクル、ミニベル等、3種の自転車、合わせて100余台を保有する。利用対象者は、小学校6年生から成人まで、1日1回利用時、3時間貸し出し可能。午前9時の自転車出庫をはじめ、午後5時までの入庫すればよい。南洞区の都市管理工団が委託運営している。

자전거 무료로 빌려드려요~

소래생태습지공원입구에는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9월 인천 최초로 문을 연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는 신분증을 내고 핸드폰 번호 확인 절차를 마치면 헬멧과 함께 자전거를 대여 받는다. MTB, 사이클, 미니벨 등 총 100여 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초·중·고생 6학년부터 성인까지로 1일 1회 이용시 3시간을 대여할 수 있다. 오전 9시 자전거 출고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입고하면 된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쿠산(학산)小劇場, 子供ミュージカル ‘掃除夫のうさぎ’ 公演

학산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청소부 토끼’ 공연



‘掃除夫のうさぎ’は、子供むけの公演ではなかなか見ることのできないマイム公演と共に、ライブで演奏される歌や踊りが調和した、奇抜で新しい感覚のミュージカル公演だ。掃除夫のうさぎと科学者のうさぎたちが、汚れてしまった月を掃除し、地球を助けていく冒険物語だ。この公演は、幸福に生きていく地球を夢見るうさぎのお話を描いた、ハンホジン(한호진)の原作、‘掃除夫のうさぎ’のミュージカルバージョンだ。公演そのもののおもしろさと共に、月に行こうとするうさぎたちの挑戦を通じ、難しい科学知識を簡単に、また楽しく解いていく教育的な内容までじっくり見れる。 この公演は、全席1万ウォ

ン(南区住民及び、団体 50%割引)で公演され、予約は電話申請を通じ可能だ。詳しいお問い合わせ:032-866-3927, ホームページ www.haksanculture.or.kr

- 日時:6月 17日(火)～19(金) 午前 10時 / 11時 30分
- 場所:ハクサン(학산)小劇場
- 対象:4歳以上の幼児及び小学生
- 観覧方法:電話予約販売(032-866-3927)
- 観覧料:全席1万ウォン(南区住民及び、団体 50%割引)

‘청소부 토끼’는 어린이 공연에서는 보기 드문 마임공연과 함께 라이브로 연주되는 노래, 춤이 어우러진 기발하고 참신한 뮤지컬 공연이다. 청소부 토끼와 과학자 토끼들이 더러워진 달을 청소하고 지구를 구하는 모험이야기이다. 이 공연은 행복하게 살아

가는 지구를 꿈꾸는 토끼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한호진 원작, ‘청소부토끼’의 뮤지컬 버전이다. 공연 자체의 즐거움과 함께 달에 가려는 토끼들의 도전을 통해 어려운 과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교육적 내용까지 눈여겨 볼 수 있다.

이 공연은 전석 1만원(남구 주민 및 단체 50% 할인)으로 공연되며 예약은 전화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032-866-3927, 홈페이지 www.haksanculture.or.kr 로 하면 된다.

- 일시: 6월 17일(화) ~ 19(금) 오전 10시 / 11시 30분
- 장소: 학산소극장
- 대상: 4세 이상 유아 및 어린이
- 관람방법: 전화예매(032-866-3927)
- 관람료: 전석 1만원(남구 주민 및 단체 50%할인)

Calendar June

1 sun

2014 일曜伝統芸術 常設公演 ‘オルス(얼수)·Company’ (社)仁川ブンムル(풍물)研究保存会’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5時
・☎ 032-875-4644
・韓国国家協会 仁川市支部

2014 일요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수’
・사단법인풍물연구보존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5시
・☎ 032-875-4644
・한국악악협회 인천시지부

3 tue

Pペルッラ(빠를라)オペラ団 제23回 定期演奏会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大公演場
・午後 7時30分
・R席 5万ウォン, S席 3万ウォン, A席 2万ウォン, 学生 1万ウォン

빠를라오페라단 제2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학생 1만원

5 thu

ステージ149 ミュージカル 家族(식구)を探して’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午後 7時30分
・全席 2万ウォン
・☎ 1588-2341

스테이지149: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2만원
・☎ 1588-2341

6 fri

ステージ149 ミュージカル 家族(식구)を探して’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午後 3時, 7時
・全席 2万ウォン
・☎ 1588-2341

스테이지149: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전석 2만원
・☎ 1588-2341

7 sat

DIA의 일탄(일당백) 아카베라 (一当百: 일당백) 아카베라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サリジェ(씨리제)홀
・午後 5時
・無料 (先着順 300名)
・☎ 032-760-1013

DIA의 일당백 아카펠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 032-760-3457

8 sun

特別な日曜日の午後 ‘アンサンブルシナウィ(시나위)’
・複合文化空間 トライボール
・午後 5時
・無料 (先着順 300名)
・☎ 032-760-1013

특별한 일요일 오후 앙상블 시나위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오후 5시
・무료 (선착순 300명)
・☎ 032-760-1013

10 tue

サランバン(사랑방)シネマ ‘我らアクション俳優’
・富平文化サランバン
・午後 7時
・無料
・☎ 032-505-5950

사랑방시네마: ‘우리 액션배우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무료
・☎ 032-505-5950

11 wed

レンギョと共にする Healing Concert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大公演場
・午後 8時
・全席 5千ウォン
・☎ 02-6403-7891
・コリアポップスオーケストラ

개나리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전석 5천원
・☎ 02-6403-7891
・코리아팝스오케스트라

12 thu

仁川カトリック合唱団 定期演奏会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大公演場
・午後 7時30分
・招待
・☎ 032-765-6962

인천카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 032-765-6962

13 fri

自然を歌うフォークコンサート ‘旅行スケッチ’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7時
・無料
・☎ 032-420-2051

자연을 노래하는 포크 콘서트: ‘여행 스케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32-420-2051

14 sat

仁川ミチュホルクラリネットアンサンブル第3回 定期演奏会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午後 5時
・招待
・☎ 032-433-7778

인천미추홀클라리넷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 032-433-7778

15 sun

シンモンバク ギュリ(신명 박구리) 伝統演舞場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午後 5時
・無料
・☎ 032-544-3213

신명 박구리 전통 춤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무료
・☎ 032-544-3213

17 tue

サランバン(사랑방)シネマ ‘自転車に乗った少年’
・富平文化サランバン
・午後 7時
・無料
・☎ 032-505-5950

사랑방시네마: ‘자전거 탄 소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무료
・☎ 032-505-5950

18 wed

コーヒーコンサートⅦ バッハソリステンソウルが語る 古典音楽物語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午後 2時
・全席 1万5千ウォン
・☎ 1588-2341

커피콘서트Ⅶ: 바흐솔리스텐서울이 들려주는 고(古)음악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19 thu

フルートアンサンブルコンサート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午後 7時30分
・全席 1万ウォン
・☎ 032-888-2898

플루투 앙상블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1만원
・☎ 032-888-2898

20 fri

TBN仁川交通放送と共にする トライボール 青春コンサート
・金曜浪漫タバン(디방)
・複合文化空間 トライボール
・午後 8時
・無料
・☎ 032-760-1014

TBN 인천교통방송과 함께하는 트라이볼 청춘콘서트: ‘금요낭만디방’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오후 8시
・무료
・☎ 032-760-1014

21 sat

ソレ(소래), 海そして我らの歌’
・南洞文化芸術会館 ソレ劇場
・午後 7時
・1千ウォン
・☎ 453-5710

소래, 바다 그리고 우리의 노래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7시
・1천원
・☎ 453-5710

22 sun

2014 クムタラク(꿈다락) 土曜文化学校 演劇発表会 開催‘世間に堂々と立ち向かえ!’
・延寿区文化の家 小劇場
・午後 4時
・無料
・☎ 032-821-6229

2014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연극 발표회 개최: ‘세상에 당당히 맞서라’
・연수구 문화의집 소극장
・오후 4시
・무료
・☎ 032-821-6229

24 tue

創意力向上 遊び体験 ‘砂と光と’
・富平アートセンター ギャラリー コッヌリ(꽃누리)
・午前 10時, 10時 40分, 11時 20分, 12時
・午後 1時 30分, 2時 10分, 2時 50分, 3時 30分, 4時 10分
・全席 1万5千ウォン
・☎ 032-500-2000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1만 5천원
・☎ 032-500-2000

25 wed

ザファクトリーシアターの小道具 具舞踊劇
・東春3洞 ブスジ(부수지) 近隣公園
・午後 7時
・無料
・☎ 032-821-6229

더팩토리시어터의 소도구 무용극
・동춘3동 부수지 근린공원
・오후 7시
・무료
・☎ 032-821-6229

26 thu

創意力向上 遊び体験 ‘砂と光と’
・富平アートセンター ギャラリー コッヌリ(꽃누리)
・午前 10時, 10時 40分, 11時 20分, 12時
・午後 1時 30分, 2時 10分, 2時 50分, 3時 30分, 4時 10分
・全席 1万5千ウォン
・☎ 032-500-2000

창의력 향상 놀이체험: ‘모래랑 빛이랑’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오후 1시 30분, 2시 10분, 2시 50분, 3시 30분, 4시 10분
・1만 5천원
・☎ 032-500-2000

27 fri

価値のある彼女たちの逸脱 ‘エルモサ’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7時
・無料
・☎ 032-420-2051

가치있는 그녀들의일탈: ‘에르모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32-420-2051

28 sat

仁川市立劇団 ‘グッドモーニング 春香’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野外公演場
・午後 7時
・無料
・☎ 032-420-2742

인천시립극단: ‘굿모닝 춘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32-420-2742

29 sun

2014 プラットホーム チョイス 現代舞踊 ‘100W 220W’
・仁川아트플랫폼 하우스 公演場
・午後 3時
・2万ウォン
・☎ 032-760-1005
・パイプ(파이브)舞踊団

2014 플랫폼 초이스: 현대무용 ‘100W 220W’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3시
・2만원
・☎ 032-760-1005
・파이브무용단

This Month's Exhibitions

6월 11일~6월 19일 미추리(미추리)写真サークル、美しい発見展/仁川生涯学習館 ギャラリー
6월 20일~6월 26일 2014 한국카トリック美術家協会展/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大展示室
6월 20일~6월 26일 2014 토와사람들/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展示室
6월 22일~6월 26일 中国 廣州 リンナン(링난) 水墨画交流展/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中央展示室
6월 23일~7월 4일 베크존보ム(백중범), 四季展/仁川生涯学習館 ギャラリー タソム(다솜)
6월 25일~7월 6일 뽤쥘쥬(변영덕) 個人展/仁川学生教育文化会館 ガオン(가은) ギャラリー
6월 27일~7월 3일 第4回 靑少年 環境ジッキム(지킴)展/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展示室
6월 27일~7월 3일 찬파(창파) 會員展/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미추홀(미추홀)室

이달의 전시회

6월 11일~6월 19일 미추리 사진 동아리, 아름다운 발견展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6월 20일~6월 26일 2014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6월 20일~6월 26일 2014 흥과 사람들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6월 22일~6월 26일 중국 광저우 링난 수묵화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6월 23일~7월 4일 백중범, 사계展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6월 25일~7월 6일 변영덕 개인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은갤러리
6월 27일~7월 3일 제4회 청소년 환경지킴이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6월 27일~7월 3일 창파 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ソウル外信記者クラブ、인천AG プレスツアー(프레스투어)実施

서울외신기자클럽, 인천AG 프레스투어 실시

ロイター,TASS通信等で構成されているソウル外信記者クラブは、先月5月 28日,2014仁川アジア大会の準備状況を把握するため、主競技場と組織委員会の事務室を訪問するプレスツアーを実施した。ソンド(송도)国際都市ミチュホル(미추홀)タワーに設けられた仁川アジア大会組織委員会へ移動した一行は、キムヨンス(김영수)組織委員長の出迎えを受けたのち、広報映像とPPT等を通じて仁川アジア大会についての紹介を受けた。特に組織委は、この席で5月31日からテレビを通じて放映される広報CMの初公開も行った。

ロイター, タス 통신 등으로 구성된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5월 28일, 2014인천아시아게임의 준비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주경기장과 조직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프레스 투어를 실시했다.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 자리한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로 이동한 일행은 김영수 조직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후 홍보 영상과 PPT 등을 통해 인천아시아게임에 대해 소개 받았다. 특히 조직위는 이 자리에서 5월 31일부터 TV를 통해 방영한 홍보CF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AG広報館にてお調べ下さ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AG홍보관에서 알아보세요!



45億のアジア人の祝祭、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が100日前に近づいてきた。文字通り目の前だ。いまだにアジア大会が他人

事のように感じられるなら、松島国際都市のミチュホルタワー1階にあるアジアゲーム広報センターに行ってみよう。AG広報センターは、2014アジア大会のAからZまで紹介している所だ。アジア大会の歴史、種目 等について、映像資料と共にマスコット ‘アザラシの三きょうだい’の紹介まで、一目瞭然できるように整理されている。検索ゾーンを利用すると2014AGについての情報をより容易に調べる事ができる。特にアジア大会の競技を3Dゲーム体験できる ‘競技種目体験’は、訪問客に退屈のすきを与えない。この他にもアザラシの三きょうだいと一緒にするフォトゾーン、電子芳名録等、多様なコンテンツ構成になっている。 2014仁川アジア技大会は、9月 19日から10月 4日までの16日間、オリンピックと非オリンピック種目を合わせた36の競技が繰り広げられる予定だ。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아시안게임이 남의 집 일처럼 느껴진다면 송도 국제도시 미추홀타워 1층에 있는 아시안게임 홍보센터를 찾아보자.

AG홍보센터는 2014아시안게임의 A부터 Z까지 소개하는 곳이다. 아시안게임의 역사, 종목 등에 대한 영상자료들과 더불어 마스코트 ‘물범삼남매’의 소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아시안게임의 경기를 3D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기종목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밖에도 물범삼남매와 함께하는 포토존, 전자방명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올림픽과 비올림픽 종목을 합친 36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仁川アジアード競技場の主人を探しています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組織委員会では、アジアード競技場の主人を探すイベントを、8月 15日より進行。観覧席を1口座当たり、個人:2万ウォン、団体 及び 法人:20万ウォン以上を寄附すると、仁川アジアード主競技場、文鶴パクテファン(박태환)水泳場、ヨルウムル(열우물)テニス競技場の観覧席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る。参加市民には、観覧席にネーム表が付着され、銅版には記念会員名簿を登載し、競技場の主出入口 の壁面に設置される予定だ。また、500口座以

上の場合アジア競技大会の白書に名簿が登載される。アジア競技大会を応援している市民なら誰でも参加可能だ。

● お問い合わせ:032) 458-2490
(組織委員会 記念事業チー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시아드 경기장의 주인을 찾는 이벤트를 오는 8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관람석 1구좌 당 개인은 2만원, 단체 및 법인은 2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문학박태환수

영장, 열우물테니스경기장의 관람석을 갖게 된다. 참가한 시민에게는 관람석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동판에 기념회원 명단을 등재해 경기장 주출입구 벽면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500구좌 이상의 경우 아시아경기대회 백서에 명단이 등재된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응원하는 모든 시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 문의: 032) 458-2490 (조직위원회 기념사업팀)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ーチャ・ジウン(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サポーターズニュース / 서포터즈 뉴스

AG 青年サポーターズ、民間外交活動でアジア大会と仁川を紹介

AG 청년서포터즈, 민간외교활동으로 아시안게임과 인천 알린다

仁川国際交流財団・仁川アジアゲーム青年サポーターズの5期が、本格的な活動を開始した。国家別に分かれた176のチームは、サポーターズ活動期間の計画を立て、広報活動に進み出した。チーム別の広報活動と共に、ビジョン2014プログラムに参加、選手たちを応援しながら国家別のコミュニティー活動にも力を注いでいる。先月5月には、イエメンとミャンマ選手団の転地訓練場を訪問し、選手団を応援し、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を広報する等、民間外交活動を繰り広げている。

アジアゲーム青年サポーターズは全国各地で、仁川アジアゲームを紹介、また仁川を紹介する等、広報活動に拍車を加える予定だ。アジアがひとつになるための、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で各国の選手を応援し、国家別のコミュニティーと連携しながら、交流を引き続ける青年サポーターズ5期の活躍が期待される。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아시아게임 청년서포터즈 5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별로 나뉜 176개 팀은 서포터즈 활동 기간 동안의 계획을 세워 홍보활동에 나섰다. 팀별 홍보활동과 함께 비전 2014프로그램에 참여해 선수들을 응원하며 국가별 커뮤니티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예멘과 미얀마 선수단의 전지훈련현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응원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는 등 민간외교활동을 펼쳤다.

아시안게임 청년서포터즈는 전국 각지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알리고, 인천을 소개하는 등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시아가 하나 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각국의 선수를 응원하고, 국가별 커뮤니티와 연계해 교류를 이어나갈 청년서포터즈 5기의 활약이 기대된다.

차지은 기자
ーチャ・ジウン(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ホームステイ(民宿) 参与 家庭

홈스테이(민박) 참여 가정 모집

仁川国際交流財団は、2014仁川アジア競技大会の期間中、ホームステイ(民泊) 参与家庭を募集する。参与家庭は、宿泊及び、食事提供と共に、空港までの移送や主要観光地の案内等を提供することになる。仁川を訪問する外国人に、韓国家庭及び韓国の伝統文化体験の機会を提供するホームステイ家庭は、6月まで関連部署に申請すれば可能だ。

● お問い合わせ:仁川国際交流財団 032)451-1732,
仁川広域市 自治行政課 032)440-2422~8

인천국제교류재단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기간 중 홈스테이(민박) 참여 가정을 모집한다. 참여가정은 숙박 및 식사제공과 함께, 공항 수송, 주요 관광지 안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홈스테이 가정은 6월까지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인천국제교류재단 032)451-1732,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032)440-2422~8

北朝鮮、仁川アジアゲーム全種目参加発表

북한, 인천아시안게임 전 종목 참가 발표

北朝鮮は、先月5月23日、9月仁川にて開催される、第17回アジア競技大会に選手団派遣を公式発表した。

朝鮮中央通信はこの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オリンピック委員会は、平和と団合、親善を理念としたアジアオリンピック理事会の成員国として、9月19日から10月4日まで 大韓民国の仁川で行われる、

第17回 アジア競技大会に朝鮮選手団を送ることを決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

仁川市は、北朝鮮が1月20日にサッカー

種目参加の表明に続き、今回、全種目へ選手団を派遣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歓迎している。その間、政府と協力しあい北朝鮮の仁川アジアゲームへの参加を促すため、南北親善サッカー等を開催する等、絶え間ない努力がなされてきた。仁川市では、この度の北朝鮮アジアゲーム参が、南北韓の緊張を解消する契機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북한은 지난달 23일 오는 9월 인천에서 열

리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친선을 이념으로 하는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조선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축구 종목 참여 입장 발표에 이어 이번엔 전 종목에 선

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그동안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남북 친선축구 등을 개최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천시는 이번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가 남북한 긴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는 인천AG조직위원회와 협조해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선수단, 임원, 응원단 등의 안전문제, 숙박, 공동 응원 등 북한 선수단이 머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仁川希望の森’造成によってモンゴルの砂漠化防止

‘인천 희망의 숲’ 조성으로 몽골 사막화 방지



仁川市は気候変化対応と、モンゴルの砂漠化・黄砂防止のため、モンゴルに‘仁川希望の森’の造成 造林活動を実施した。先月の5月 14日から18日まで、3泊5日の日程で、仁川緑色環境支援センターとプルン(平壤)アジアと共に行われた。

この度の造林活動は、民間の募金活動によって造成された、6,000余万ウォンと市

費の補助金により、モンゴルのグリーンベルト幹線に位置する、タシンチリンソム(다신칠링솜)地域10haに、防風林、有実樹等、1万2000株を植樹した。

造林行事に共に参加した、モンゴル・自然環境緑色成長部のバトゥボルトウ(바트볼트)国際協力局長とその一行は、“仁川市が2008年からモンゴルの砂漠化防止

事業(42ha,6万8000株)を持続的に推進してく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感謝し、今後、相互協力により努力していきたい。”と、表明した。

인천시는 기후변화대응과 몽골 사막화·황사 방지를 위해 몽골에서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조림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푸른아시아가 함께 했다.

이번 조림활동은 민간 모금 활동으로 조성된 6,000여만 원과 시비 보조금으로 몽골 그린벨트 간선에 위치한 다신칠링솜 지역 10ha에 방풍림, 유실수 등 1만2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조림행사에 함께 참여했던 몽골 자연환경 녹색성장부 바트볼트 국제협력국장과 일행은 “인천시가 지난 2008년부터 몽골 사막화방지 사업(42ha, 6만8000그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상호협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国際機構で働きたいです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仁川国際交流財団は、外交部と共に5月 28日(水) 午前 9時 延世大学校 松島国際キャンパスにおいて、‘2014年度 国際機構への進出説明会’を開催した。

緑色氣候基金(GCF)事務局の仁川誘致を契機に、青年たちの国際機構進出にたいする欲求と関心が高まっている。これを解消するため開催された、この行事には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国連環境企画(UNEP), 国連奉仕団(UNV), 国際移住機構(IOM), 国際労働機構(ILO)’の現職人事・採用 担当者たちを直接招請し、国際機構進出経路についての全般的な紹介が行われた。また、国際機構の最近の人事・採用の制度傾向の紹介と模擬履歴書の評価 及び 模擬面接の機会も提供し、参加者たちにとって非常に実質的な情報伝達の機会となった。

인천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와 함께 오는 5월 28일(수) 오전 9시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에서 ‘2014년도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의 인천유치를 계기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욕구와 금급증이 높아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봉사단(UNV), 국제이주기구(IOM), 국제노동기구(ILO)’의 현직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직접 초청하여 국제기구 진출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의 최근 인사·채용 제도 경향 소개와 모의 이력서 평가 및 모의 면접 기회도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다.

松島に企業 勤勞者の寄宿舍 建立 推進

송도에 기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松島国際都市に、仁川經濟自由区域の入住企業勤勞者のための、あつらえ型寄宿舍の建立が推進される。仁川の經濟自由区域庁は、松島5工区の知識基盤サービス用地、7千900㎡敷地に1千~1千200室規模の寄宿舍を建てる計画を明らかにした。

このため4月の末、国内の金融投資諮問社と米国のホテル企業は、寄宿舍建立事業の投資意向書(LOI)を提出。これらの企業が合作し外国人投資企業をつくり、事業費750億ウォンを調達するために金融権と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PF)協商に入る計画だ。

寄宿舍は、男性用・女性用に区分し、12階建ての建物で、2棟建てられ、1室あたり15㎡内外の規模で1人部屋と2人部屋が設けられる。使用料は1人部屋基準、1ヶ月当り45万ウォンの、松島グローバル大学キャンパスの寄宿舍よりは安価に策定される予定で、賃貸だけが可能となる。具体的な着工と竣工時期は、未定だ。

송도국제도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기숙사 건립이 추진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5공구 지식기반서비스용지 7천900㎡ 부지에 1천~1천200실 규모의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 국내 금융투자자문사와 미국 호텔업체는 기숙사 건립 사업 투자 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합작하고, 사업비 75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숙사는 남성용·여성용을 구분해 12층짜리 건물 2개동으로 지어지고, 1실 당 15㎡ 안팎 규모의 1인실과 2인실이 들어선다. 사용료는 1인실 기준 월 45만원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기숙사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구체적 착공과 준공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숙사이기 때문에 분양은 불가능하고 임대만 가능하다.

国を愛し 同胞を愛する 6月は‘護国・報勳の月’

나라 사랑 겨레 사랑 _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6월’は、護国 報勳の月。国民の護国・報勳の意識と 愛国精神を高めるため指定された。6月 6日の顕忠日、6・25戦争(韓国戦争)、二度に渡る延坪海戦等、ひとときわ北朝鮮と紛争があった6月に、殉国先烈と護国英靈の犠牲精神を讃えることに意義をおく。特に仁川は、西海に囲まれた地理的條件と位置の特性から、へだたる歴史の中で、数えきれない外勢の侵略をうけながらも、大韓民国守護の最前方を守ってきた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과 애국 정신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었다. 6월 6일 현충일, 6·25전쟁(한국전쟁),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 등 유독 북한과 분쟁이 있었던 6월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서

해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지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당하며 대한민국 수호의 최전방을 지켜왔다.

韓國戰爭 ‘仁川上陸作戰’

1950年 6月 25日、ソ連製戦車を先頭に、北朝鮮が38度線を越え開始された韓国戦争。奇襲南侵に、国軍は必死に立ち向かったが、首都ソウルは、3日目に陥落。国連の迅速な決定により、国連軍が派遣されたが、北朝鮮軍に圧され洛東江の防御線まで南降されてしまった。その時、国連軍の司令官マッカーサー将軍が、繰り広げた ‘仁川上陸作戰’が成功し状況を逆転させた。その後ソウルと平壤まで奪還し、中國國境附近の鴨緑江の上流まで到達。3年と1ヶ月間の戦争は、1953年 7月 27日の休戦協定により、‘線’を引いた。自由公園には、マッカーサーの将軍像があり、松島には世界の戦争史に残る仁川上陸作戰を讃える ‘仁川上陸作戰記念館’がある。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전차를 앞세운 북한이 38도선을 넘어오며 시작된 한국전쟁. 기습남침에 국군은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다. UN의 신속한 결정으로 UN군이 파견됐으나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가고 말았다. 그때,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장군이 펼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해 상황을 역전 시켰다. 이후 서울과 평양까지 탈환하고 중국 국경 부근 압록강 상류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선’을 긋는다. 자유공원에는 맥아더 장군상이 있고 송도에는 세계 전쟁사에 남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리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있다.

北朝鮮の延坪島 挑発

1999年 6月 15日、北朝鮮側が西海北方の限界線を侵犯し南降、延坪島の近海で韓国の艦艇に先制射撃事件が起った。韓国戦争以後、南北海軍の間に起きたこの海戦は、戦争が完全に終わっていないことを想起させた。また、2002年 6月 29日、全国民が沸き上がっていた、日・韓ワールドカップの前日に発生した、北朝鮮警備艇の先制奇襲爆撃は、3年前と同じ場所で起った交戦により、韓国側は大きな衝撃を受けた。2010年 11月 23日には、北朝鮮の無差別爆撃がひどさを増した。西海の延坪島に砲弾100余発を発射。この事件は休国以来、民間人が犠牲となった、北朝鮮としては初の大規模な軍事攻撃で、軍人と民間人の4名が死亡、26名が負傷した。

북한의 연평도 도발

1999년 6월 15일, 북한 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내려와 연평도 근해에서 우리 함정에 선제 사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 해군 간에 벌어진 이 해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2002년 6월 29일, 전 국민이 들떠있던 한일월드컵 하루 전 날 발생한 북한 경비정의 선제기습 폭격은 3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교전으로 한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2010년 11월 23일, 이번에는 북한의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다. 서해 연평도에 포탄 100여 발이 발사된 것이다. 이 사건은 휴전 이래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북한의 첫 대규모 군사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護国の都市 仁川

仁川は高麗時代に、モンゴルの侵略に対抗するため、高宗が江華島に首都を移し防御した。朝鮮時代の倭乱と胡乱が起きた17世紀前後には、あえて島全体が国防の要塞となった。現在でも江華島には、島の所々に江華山城、広城堡、徳津鎮、ほか53の墩臺等がそのまま残され、護国の歴史を保有している。2014年6月は、大韓民国と北朝鮮、62年目の休戦中を意味する。仁川の隅々には、侵略の痕迹と歴史の痛みが余すところなく影をひそめている。

호국의 도시 인천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방어했다.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이 일어난 17세기 전후에는 아예 섬 전체가 국방의 요새가 됐다. 지금도 강화도는 섬 곳곳에 강화산성, 광성보, 덕진진, 53돈대 등이 그대로 남아 호국 역사를 지키고 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과 북한은 62년째 휴전 중이다. 인천 구석구석에는 침략의 흔적과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報勳行政サービスの支援業務

仁川報勳支庁では、国家報勳處の仁川地(方)庁として、大韓民国のために犠牲、また貢献された国家有功者の発掘、ならびに国家有功者及び、家族たちに報勳行政サービスの支援業務を行っている。

- 位置: 仁川市 南洞区 南洞大路 691番通り 12(九月洞 1169-5)
- 問い合わせ先: 032-430-0100

보훈행정 서비스 지원 업무

인천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의 인천 지(방)청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발굴과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보훈행정 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 위치: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691번길 12(구월동 1169-5)
- 문의: 032-430-0100

주 란 기자

ージュ・ラン(주란) 記者 rri0217@naver.com

